



전주대 체육부, 전국대회서 금2·은1·동2 획득

전주대학교 체육부(레슬링부, 씨름부)는 지난 13~19일 전남 함평군(레슬링)과 구례군(씨름)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 두각을 나타냈다.

20일 전주대에 따르면 레슬링에서 금2·동1개를, 씨름에서 은1·동1개를 각각 획득했다고 밝혔다.

금메달 입상자에는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97kg 윤동현(운동처방학과 2년)과 87kg 윤건형(운동처방학과 4년)이다. 또 씨름 용장급에 조윤호(생활체육학과 4년) 선수가 은메달을, 레슬링 77kg 정웅규(운동처방학과 4년)와, 씨름에 장사급 차승민(생활체육학과 3년)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윤건형 선수는 전국대회 4관왕을, 윤동현 선수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전 경기 테크니컬 풀승으로 우승했다.

윤건형 선수는 “4년 동안 이끌고 지도해 준 감독님과 동료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전주대를 알리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안군일자리센터, 자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안군일자리센터에서는 진안군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산림아트정원지도사 2급’과 친환경 생활을 위한 ‘탄소중립생활지도사 2급’ 자격 교육 프로그램을 미쳤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신에 벼려진 부산물과 식물들을 재활용하여 이를테운 ‘산림아트정원’을 구축하고, 탄소 중립화를 이해를 높이며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안 사통팔달의 2층 교육실에서 진행됐다.

‘산림아트정원지도사 2급’ 교육에서는 산림아트와 예술적 요소를 활용한 정원 조성 기법과 재활용 가능한 자원 활용 방법, 산림 아트 작품 제작 및 디자인 기법에 대해 학습하였다. ‘탄소중립생활지도사 2급’ 교육에서는 탄소 중립 생활의 이해와 중요성, 친환경 생활 방식, 탄소 발자국 최소화 방법,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재활용 전략 등을 배웠다.

진안군 농촌활력과장(김사홍)은 “호남의 지붕인 청정진안 고원에서 수강생들이 자연과 예술을 결합하여 산림 아트 작품을 창작하고 탄소 중립 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지역 사회의 친환경 생활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여성농업인 화합·단결 도모

### 제11회 한국여성농업인 진안군연합회 한마음대회 성료

한국여성농업인 진안군연합회는 지난 20일, 상전면 다목적실내구장에서 제11회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이효순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회원 11명에게 연합회장 및 군수 표창을 수여했으며, 가을철 소방 안전교육과 어울한마당을 통해 여성농업인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행사는 유관기관 단체장, 현여농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단결을 도모했으며, 회원들이 회장지를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 중 100만 원을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전달했다.

이효순 진안군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농업인으로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전춘진 진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은 우리 진안에서 농업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사를 통해 지역 농업을 이끌어가는 여성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하고 단합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기전대 뷰티디자인과, 미용예술경연대회 대상

전주기전대학 뷰티디자인과는 지난 16~17일 양일간 군산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6회 전라북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대한미용사회 전라북도지회에서 주최하고 전북도에서 후원했다.

이에 뷰티디자인과는 1학년 17명, 2학년 10명의 선수가 총 40종목의 작품을 출품해 아트마스크 분야에서 2학년 조상미 학생이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자격시험 커트 그랑프리(1년 김윤희), 아트마스크 그랑프리(2년 장재혁), 네일 평면 아트 그랑프리(1년 송 에스더), 네일 입체아트 그랑프리(2년 조상미)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전주기전대학 뷰티디자인과는 전북 유일 미용 실기교사 양성학과로, 미용 토탈 과정(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남원시보건소 ‘혈관을 잡아라, 건강데이’ 큰 호응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시민의 심뇌혈관 선행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 건강 교실 ‘혈관을 잡아라, 건강데이!’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건강 교실은 60세 이상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진단자(위험군)로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동부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해 총 60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문보건팀 방문간호 인력이 참여자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기초 검사와 심방세동 간이 검사와 △남원시 의사회·약사회를 연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법, 올바른 투약관리 이론교육 △심뇌혈관질환 관리 건강체조 및 기공체조, 요가로 구성된 운동 교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교실 △뇌 건강을 위한 생활공예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이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단일질환으로 사망률과 장애율이 모두 1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약물 치료 외에도 식이요법, 운동요법, 생활 습관 등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강프로그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전했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

복도·계단·파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현장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우편,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위법으로 판명되면 1회 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매일

[www.jimaeil.com](http://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신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자지사  
010-88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6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의산지사 85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정읍 산외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꽃밭 가꿔

정읍시 산외면은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참여 어르신을 통해 꽃밭을 기꾸고 도로 환경정비를 하는 등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산외면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36명을 5조로 편성해 도로 쓰레기 줍기 등 각 구역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특히, 방치된 도로변 공유지에 구절초를 심는 꽃밭 가꾸기를 추진했다. 만개한 구절초는 제16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장을 안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남원소방서,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20일 친환경 전기차동차 증가 추세에 맞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화재 진압용 이동식 침수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내연기관 차와 구조 작동 원리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배터리 화재로 인한 열 폭주현상과 폭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도입한 장비가 ‘이동식 침수조’다.

이 장비는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까지 오르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량 중심으로 침수조를 설치하고 수조 내 물을 차워서 배터리를 냉각시켜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로, ABS(내열성과 충격에 강한 플라스틱 소재) 재질의 20개의 틀로 구성되어있으며, 수조를 완전히 채울 시 약 8,000L의 물을 가둘 수 있어 차량을 침수시키는 방식으로 배터리의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